

「곤충의 눈, 새의 눈, 잠자리의 눈 —국경과 민족을 넘어선 상호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개(個)」로서의 각오.

「혼자라도 하겠다. 혼자라도 그만 두겠다.>

- 신문기자로서 세계와 일본의 취재현장에서 생각한 것 -

니즈마 요시스케

저는 현재 데즈카야마 가쿠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문의 여행’ 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원이기는 하지만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널리스트로서 대학에서 학생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참가하면서 생각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39년 2개월 동안 아사히신문 기자로 일해 왔습니다. 사건기자를 한 후 모스크바 - 카이로 - 모스크바로 10년 반의 해외취재를 포함해 국제 보도 현장에서 20년. 이란·이라크 전쟁,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철수 등 전쟁터도 잠깐씩 봐 왔습니다. 한국, 중국의 최고지도자와 아사히신문의 단독 회견 자리에 참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의 체험·경험을 짚어가며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와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는 움직인다. 21세기에 들어와, 특히 올해 2009년, 시대는 역사적인 대전

환기에 놓였다.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계(흑인)대통령이 탄생했다. 동시에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격랑이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 3사(빅3)를 파탄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을 시작으로 일본을 포함해 세계는 심각한 경제 불황의 긴 터널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 상징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구심력이 크게 저하되고 ‘달러 일극(一極) 지배체제’,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패러다임(틀)을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라는 강대국 한 나라가 세계의 지도자로서 혼자 잘난 체 하며 행동하는 세계는 아니다. ‘다극화’ 시대, ‘무극화’ 시대, ‘전원 참가형 질서’ 등 다양한 표현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다.

꼭 20년 전, 1989년은 세계의 여러 가지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동서냉전의 종결뿐만 아니라 민주화, 인터넷의 비약적인 보급, 경제의 글로벌화. 한편,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사회주의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소련군이 포탄을 발사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트빌리시 사건’ 등 민족분쟁이 불을 뿜어 국제테러의 위협이 확산되었다.

1989년 12월 2일, 나는 몰타섬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구소련의 새하얀 호화여객선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갔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미 대통령(父)과 고르바초프(Mikhail Sergeevich 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미·소 정상회담 후 ‘냉전을 지중해의 바다 속에 내던지겠다’며 동서냉전의 종결을 선언한 순간이다.

그 일이 있기 6개월 정도 전인 1989년 5월 15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나도 동행기자단의 한 명으로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으로 갔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베이징에 계엄령을 발령하기에 이르렀던 5월 20일 천안문 광장에서의 민주화 요구 데모를 철야로 취재했다. 11월 9일에는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한국과 관련해서 1989년에 기억나는 것은 매년 12월 31일에 방송되는 NHK 흥백가합전(紅白歌合戦)으로, 조용필 씨, 계은숙 씨, 김연자 씨, 패티김 씨 4명의 한국 가수가 흥백가합전의 무대에 선 것이다. 이른바 제1차 ‘한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화가 선언되어 군정이 종언을 맞이한 1987년에 조용필 씨가 한국의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홍백가합전에 나왔다. 군사정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던 민중의 에너지가 민주화에 의해 개화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잇달아 멋진 작품을 탄생시켜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한류 붐이 밀려온 것은 그로부터 10년 정도 뒤다.

1991년에는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일한 강대국’이 되어 미국 일국지배체제가 굳어졌다. 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2003년 3월에는 프랑스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UN안보리(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로 이라크 전쟁에 발을 내딛는다. 미국의 ‘단독 행동주의’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라크 전쟁의 최대 이유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 자리를 떠나기 직전이 되어서야 부시 대통령(당시)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전쟁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인 사망자 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을 합쳐 4824명이다. 이라크인들의 사망자 수는 8만 5000명 이상이다. 그 숫자의 몇 배나 되는 가족, 친구가 비탄에 잠겨있다. 부시정권 하에서 악화된 대 테러전쟁의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교수가 어림잡아 계산한 바로는 전쟁비용이 3조 달러(약 3700조)를 넘는다는 전망이다. 이것이 미국경제의 파탄을 가속시킨 것은 틀림없다.

시대라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류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이 세계를 희망차게 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닐까.

<평화롭고 공정한 신질서를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상호이해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이러한 ‘신시대’의 국제교류에서 ‘새로운 내일’을 열, 신선하고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풍부한 ‘이정표’를 소개하고 싶다.

2008년 12월 5일 89세로 돌아가신, 일본에서는 ‘지(知)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평론가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씨가 2005년 3월에 중국에서 학생과 연구자에게 제언한 발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상대 나라를 이해해야 한다. 물론 자신의 나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일본을 보았으면 좋겠다. 일본을 회색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회색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전쟁이나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를 검은색으로 본다고 치면, 스위스 같은 순수 평화국가를 흰색으로 본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모든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중국에서 일본을 볼 경우, 순백으로도 순흑으로도 보지 않는다면 일본은 여러 가지 면이 보인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좋다, 또는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도 이해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열쇠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허용한다. 비판도 허용한다. 민주주의의 논리적인 배경에는 ‘관용’이 있다. ‘관용’이라는 것은 좋아할 수 없는 인간도 용서하는 노력이다. ‘관용이 민주주의를 낳는다’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세 개의 눈’이다.

땅바닥을 기듯 작은 것을 정확하게 잡는 ‘곤충의 눈’, 높이 날아올라 크게 전체를 파악하는 ‘새의 눈’, 그리고 두 개의 큰 눈 속에 수많은 홑눈(個眼)으로 모든 각도에서 보는 ‘잠자리의 눈’. 즉 복안(複眼)이다. 신문기자 시절에 이 ‘세 개의 눈’에 철저하게 길들여졌다.

또 가토 슈이치 씨는 “민족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경에 제약받지 않고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지식인밖에 없다. 그리고 지식인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정치를 초월하는 것은 현실사회에서의 정치가에게는 불가능하다. 정치가는 정당 또는 이익집단 심지어 국가이익에 의해 제약을 받고 그것들의 이익에 속박된다.”

게다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지지 않은 단수인 ‘나’, ‘개(個)’로서의 ‘나’를 확립하고 관찰하는 것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 단독의 ‘사(私)’를 계속 강조하기만 한다면 더욱 많은 ‘사(私)’가 파생된다는 것이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되는 즉, ‘혼자라도 하겠다, 혼자라도 그만 두겠다’라는 결의와 각오가 필요하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증동을 비롯하여 세계에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민족과 국경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들이 있다

한일 양국의 배우를 비롯하여 연출가, 스태프의 종합력이 만들어낸 연극 「불고기 드래건(焼肉ドラゴン)」이 2009년 1월, 아사히 무대예술상 그랑프리를 받았다. 재일한국인 일가가 시대와 사회에 농락당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모습을 눈물과 웃음, 정을 가득 담아 그려냈다.

일본인, 한국인, 재일한국인 출연자가 한데 섞여, 한국의 젊은 실력가 양정웅(梁正雄)을 공동연출로 맞이한 연습장은 그야말로 비빔밥(뒤섞임)상태였다. 그래서 모두가 흥금을 털어놓고 커뮤니케이션을 거듭한 것이 무대의 완성도로 이어졌다. 도쿄에서도 서울에서도 객석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저널리스트에게도 ‘민족과 국경을 넘어 선다’는 것은 크고 무겁게 마음속을 엄습하는 최대의 과제이다. 특히 전쟁 보도, 자신의 나라가 전쟁당사국이 되었을 경우다. 저널리즘이 자국중심 내셔널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은 세계 공통의 위험성이다. ‘무엇이 진짜 국익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항상 미묘하고 어려우며 거의 언제나 ‘당시 정부의 국익관’에 가담해버린다. 당시 정부의 이익(Governmental interest)과 민중을 위한 진짜 국익(National interest)을 구분하는 안목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느 시대라도 저널리스트는 그런 안목을 요구받고 있다.

영국의 BBC는 ‘정부가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만이 진짜 국익인 것은 아니다. 저널리스트에게 진실이 될 수 있어야 비로소 국익이다’라는 사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의 보도에는 주관적인 판단을 더하지 않고 전쟁당사자 어느 쪽의 편도 되지 않는다’는 객관보도와 공정의 원칙을 그 무기로 하고 있다. 저널리스트에게는 국적이 있으므로 전쟁이 나면 어쨌든 애국적인 보도가 되어 냉정한 객관적 보도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군’, ‘적’, ‘우리 편’

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다. 저널리스트가 충성을 맹세하는 상대는 ‘국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진실’이어야 한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선 상호이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문화교류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다. ‘정랭경열(政冷經熱)’, ‘정열경열(政熱經熱)’이라는 말처럼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뜨겁게 흔들리며 움직인다. 그러나 두터운 저류로 가로놓여있는 문화관계의 ‘체온’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문화교류는 1-2년만의 결과가 아니다. 20년, 30년에 걸친 것이다. 당시의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길게 보면 국민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희망인 국민이 주인공 즉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평화사상을 폭넓게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연결되어가는 과정에 비로소 행복이 있다. 그를 위해서는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대항자를 같은 편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힘이다. 상대의 마음에 와 닿는 말은 우리들은 가질 필요가 있다. ‘말은 힘’이다.

말에는 두 가지 힘, 즉 임무 같은 것이 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봉대 같은 말. 또 하나는 힘이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짓밟는 권력과 싸우는 말이다.

‘언어를 무기’로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진지하게 이야기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해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때 첫 번째 원칙은 ‘비판의 칼은 자신에게 향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화해와 상호이해의 기본적인 태도다.

눈앞의 벌어진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히면 운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시간과 공간의 틈을 좀 더 넓혀서 중장기적인 이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시점을 바꾸어 가면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의 최초 희생자는 ‘진실’이다. 전쟁은 인간을 못 쓰게 만든다. 가장 반인간적인 행동이다.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가

기 위해서는 인간을 죽이는 도구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언어’의 힘과 중요도를
걸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더 이상 못하겠다 싶
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거듭해 상황을 돌파하고 끈질기게 미래를 자아내는
것 외에 길은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虫の目 鳥の目

トンボの目—国境と民族を越えた相互理解のために」

〈求められる「個」としての覚悟。「ひとりでもやる。ひとりでもやめる」〉

— 新聞記者として、世界と日本の現場取材で考えたこと —

新妻義輔

私は現在、帝塚山学院大学で学生と「学びの旅」を続けています。ですから、大学教員ではありますが、「あなたは 何者か」と問われれば、「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大学で若者たちと同じ位置に立って、ともに参加しながら考えながら学んでいる」と答えています。

私は39年2カ月、朝日新聞記者をしました。事件記者などをしたあと、モスクワ—カイロ—モスクワと10年半の海外取材をふくめ国際報道の現場に20年。イラン・イラク戦争、1982年のイスラエルのレバノン侵攻、旧ソ連のアフガニスタン侵攻・撤退など戦場も垣間見ました。韓国、中国の最高指導者と朝日新聞の単独会見の場に身を置いたこともあります。

今日は、こうした自分の体験・経験を踏まえて「これだけはいえる」ということを軸に話します。

〈今の世界と日本をどう見るか〉

時代は動く。21世紀に入って、とくに、今年2009年は、時代は歴史的な大転換期にある。アメリカに史上初めてのアフリカ系(黒人)大統領が誕生した。同時

に、米国を震源地とする世界的な金融危機の激震が、米国の自動車大手3社(ビッグスリー)を破綻ぎりぎりまでに追い込んだのをはじめ、日本を含め今、世界は深刻な経済危機という思いのほか長いトンネルの中に入ってしまった。この象徴的な「あらわれ」として、米国の求心力が大きく低下し、「ドル一極支配体制」「唯一の超大国」というパラダイム(枠組み)を転換する時期を迎えている。もはや米国という超大国一国が世界の指導者としてわが物顔にふるまう世界ではない。「多極化」の時代、「無極化」の時代、「全員参加型秩序」とさまざまに呼ばれ、混沌としている。

ちょうど20年前の1989年は、世界のさまざまな変化の出発点だった。東西冷戦の終結だけでなく、民主化、インターネットの飛躍的な普及、経済のグローバル化。一方、グルジアの首都トビリシで社会主義・ソ連からの独立を求めた市民にソ連軍が発砲して多数の死者を出した「トビリシ事件」など民族紛争が火を噴き、国際テロの脅威が拡散した。

1989年12月2日、わたしはマルタ島の港に停泊していた旧ソ連の真っ白い豪華客船のホールでの記者会見場にいた。ブッシュ米大統領(父)とゴルバチョフ・ソ連共産党書記長が顔をそろえていた。米ソ首脳会談のあと、「冷戦を地中海の海の底に投げ捨てる」と、東西冷戦の終結を宣言した瞬間だ。

この半年ほど前、89年5月15日、ソ連のゴルバチョフ共産党書記長が中国を訪問した。私も同行記者団のひとりとしてモスクワから北京に入った。そして、中国政府が北京に戒厳令を発令するに至った、5月20日の天安門広場での民主化要求デモを、徹夜で取材した。11月9日には東西ドイツを隔てていたベルリンの壁が崩壊している。

韓国との関係で、1989年で思い起こすのは、12月31日の恒例のNHK紅白歌合戦に、チョーヨンピルさん、ケイウンスクさん、キム・ヨンジャさん、パティ・キムさんの4人の韓国の歌手が紅白の舞台に立ったことだ。いわば「韓流」の第一波だった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韓国で民主化が宣言され、軍政が終幕

を迎えた1987年—この年、チョー・ヨンピルさんが韓国の歌手としては初めて紅白歌合戦にでていた。軍事政権によって抑圧されていた民衆のエネルギーが、民主化によって花開き映画やドラマでのびのびと素晴らしい作品を生み出し、心をとらえる本物の韓流ブームが押し寄せるのはその10年ほどあとだ。

1991年には社会主義・ソ連が崩壊し、米国が軍事でも、経済でも「唯一の超大国」になり、米国の一国支配体制が固まった。2001年9・11の同時多発テロをきっかけに、米国はアフガニスタンを攻撃。2003年3月には、フランスなどの反対を押し切り、国連安保理の支持を得ないまま、イラク戦争に踏み切った。米国の「単独行動主義」が浮き彫りになった。イラク戦争の最大の理由は「イラクが大量破壊兵器をもっているからだ」ということだった。しかし、まったくなかった。大統領の座を去る間際になって、ブッシュ大統領(当時)は「間違った情報に基づく戦争だった」といった。しかし、米国人の死者はアフガン、イラク戦争合わせて4824人。イラク人の死者は8万5000人以上だ。この何倍もの家族、友人が悲嘆にくれている。ブッシュ政権下で泥沼化した対テロ戦争の出口はまだ、見えていない。

ノーベル経済学賞を受賞したスティグリッツ教授の試算では、戦費は3兆ドル(273兆円)にのぼる見通しだ。これが米国経済の破綻を加速させ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

時代とは「なる」ものではなく、わたしたち人類が「つくる」ものだ。わたしたち一人ひとりが、その世界を希望あるものにするために立ち上がるときではないか。

<平和で公正な新秩序を求める動きのなかで、民族と国境をこえた相互理解をどう進めるか>

こうした「新時代」の国際交流で「新しい明日」を拓く、新鮮で具体的な示唆に富む「道しるべ」を紹介したい。

2008年12月5日に89歳でなくなった、日本では「知の巨人」といわれている評論家・加藤周一さんが、2005年3月に中国で、学生や研究者に問いかけた発言だ。

「問題を解決しようと思えば、まず相手の国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ち

ろん、自分の国も理解する必要がある。中国の若い人たちは、理解しようという気持ちで日本を見て欲しい。日本を灰色としてみて欲しい。灰色とは何か。例えば、戦争や戦いが好きな国を黒色としてみるとすれば、スイスのような純粹平和国家を白色としてみる。日本という国はどちらの面ももっている。だから、単色としてみないでほしい。中国から日本を見る場合、日本は純白としてでも、純黒としてでもなくみてもらえば、いろいろな面がみえてくる。逆に言えば、中国も同じだ。中国も天国ではない。自分の問題を見るときにも、客観的に、いろいろな角度から理解する必要がある。中国に対しても、日本に対しても、絶対によい、あるいは絶対に悪いという絶対的判断をせず、総合的に見る。このように相手を理解し、自分も理解することだ。

一言でいえば、民主主義がカギだということだ。民主主義は多様性を許す。批判を許す。民主主義の倫理的な背景には、「寛容」がある。「寛容」とは、好きになれない人間をもがまんする努力だ。「寛容が民主主義を生む」ともいえる。

このために欠かせないのが「三つの目」だ。

地べたを這うように細かいことを正確につかむ「虫の目」。高く飛び上がって大きく全体をとらえる「鳥の目」。さらに、二つの大きな眼のなかにたくさんの個眼を持ちあらゆる角度からみる「トンボの目」つまり、複眼だ。新聞記者時代に、この「三つの目」を徹底的にたたきこまれた。

さらに、加藤周一さんは「民族主義のためではなく、国境に制限されず、人類のために何をすべきか」を考え、「国家を超え、人類の立場で物事を判断するのは、知識人しかない。そして、知識人は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治を超越するということは、現実の社会では、政治家ではできない。政治家は政党、あるいは利益集団、さらには国家利益によって制限され、それらの利益にしばられる」。

しかも、「わたしたち」という複数ではなく、何ものにも寄りかからない、単数の「わたし」、「個」としての「わたし」を確立し、貫く大切さを説いていた。単独の「わたし」を強調しつづけさえすれば、さらに多くの「わたし」が派生してくる、というのだ。

国境と民族を越えて絆を強め、相互理解を深めるためには、一人ひとりが「個人」

として、「ひとりでもやる。ひとりでもやめる」の決意と覚悟が求められている。

国境と民族を越えようと挑み続けている人たちは、血が流れつづけている中東を始め世界にいる。日本と韓国の間にも、民族と国境の壁を乗り越えて、「新しい地平」を切り開いた人たちがいる。

日韓両国の俳優をはじめ、演出家、スタッフの総合力が生み出した演劇「焼肉ドラゴン」が2009年1月、朝日舞台芸術賞のグランプリを受けた。在日韓国人一家が時代や社会に翻弄されながらも未来に向かって生きる姿を、涙や笑い、詩情たっぷりに描いた作品だ。

日本人、韓国人、在日の出演者が入り混じり、韓国の若手俊英、梁正雄(ヤン・ジョン・ウン)を共同演出に迎えた稽古場は、まさにビビンパップ(ごちゃまぜ)状態だった。そこで全員が胸襟を開き付き合いを重ねたことが、舞台の完成度につながった。東京でも、ソウルでも客席の反応は圧倒的だった、と新聞は報じている。

ジャーナリストにとっても、「民族と国境を越える」ことは、大きく、重く、心の上ののしかかってくる最大の課題である。とくに戦争報道。自分の国が戦争当事国になった場合だ。ジャーナリズムが自国中心のナショナリズムに陥りやすいのは、世界共通の危険性である。「何が真の国益か」を見分けるのは常に微妙で難しく、ほとんどいつも「時の政府の国益観」に加担してしまう。時の政府の利益(ガバメンタル・インタレスト)と民衆のための真の国益(ナショナル・インタレスト)とを見分ける眼力をどう養うか。いつの時代にも、ジャーナリストは問われている。

英BBCは「政府が国益と考えることを伝えるだけが、真の国益ではない。ジャーナリズムにとって真実こそが国益だ」という思想を貫いている。「事実の報道には主観的な判断を加えず、戦争当事者のどちらの味方にもならない」という客観報道と公正の原則をその武器にしている。ジャーナリストには国籍があるので、戦争になると、とかく愛国的な報道になり、冷静な客観的報道が実現しにくいからだ。「わが軍」「敵」「わが方」という言葉づかいを避けている。ジャーナリストが忠誠を誓う相手は「国」ではなく、ただ一つ「真実」でなければならない。

〈国境と民族を越えた相互理解のカギを握るのは、文化交流だ〉

国と国との関係を考える場合、政治があって経済があって文化がある。「政冷経熱」「政熱経熱」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政治と経済は時には冷たく、時には熱く、と揺れ動く。しかし、息長く太い底流として横たわっている文化関係の「体温」は、一定の水準で保たれている。文化交流は1、2年では結果はでない。20年、30年かかることもある。時の政府の方針に沿わないことでも、長い目で国民同士の相互信頼の関係を築くことが必要なのだ。

わたしたちの希望である国民が主人公つまり「主権在民」と平和思想を、幅広い人々が共有しながらつながっていく過程にこそ幸せがある。そのためには、対立している人たちも味方にしていく。対抗者を味方にすることは、人間の美しい力だ。相手の心に届く言葉を私たちは持つ必要がある。「言葉は力」だ。

言葉には二つの力、役目のようなものがある。傷ついた心をやわらかく包み込む包帯のような言葉。もうひとつは、力がなくとも懸命に生きる人たちを容赦なく踏みつける権力とたたかう言葉だ。

「言葉を武器」にして、意見が違う人同士が真剣に話し合っ合意をつくりあげる。とくに、若い世代が、新しい未来をいかにつくれるかについて渾身の気合を込めて話し合う。この時の第一の原則は「批判の刃は自分に向ける」こと。第二の原則は「相手の立場で考える」ことだ。この二つは和解や相互理解の基本的な態度だ。

目の前の一つのことにとらわれると身動きが取れなくなる。時間と空間の枠をもう少し広げて、中長期的な利益は何かと、視点を変えていけば難しい問題も乗り越えられる。

武力では何も解決しない。戦争の最初の犠牲者は「真実」だ。戦争は、人間をだめにする。最も反人間的な行動だ。人間であり続けるためには、人を殺す道具を用意してはいけない。「言葉」の力を重みにかけ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アンド、コミュニケーション」、これ以上できないぐら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重ね、状況を切り開き、粘り強く未来を紡ぐしか道はない、とわたしは確信している。